

이범호, 전설의 길을 걷는다

올해 38살... 여전히 팀내 존재감 높아
지난해 타율 0.280 4년 연속 20홈런
데뷔 20년째 · 통산 2000경기 앞뒤

KIA 타이거즈 이범호가 2019시즌도 힘차게 뛰다. 이범호는 2015시즌을 마치고 KIA와 두 번째 FA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지만 2+1년 계약이었다. 2018 시즌은 옵션을 채워야 2019시즌이 가능했다. 그러나 무난하게 옵션을 채우는데 성공했고 자동으로 올해까지 땀다. 2019시즌은 이범호의 야구인생에서 가장 의미있는 시즌이 될 수도 있다. 올해 38살이다. 은퇴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까지 몇 차례나 '언제까지 야구를 하겠는가' 나도 항상 (은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구단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유니폼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수진을 치고 2019시즌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범호는 여전히 팀내에서 존재감이 높다. 작년 101경기 출전해 타율 2할8푼, 20홈런 69타점, 3할6푼6리, 장타율 4할8푼2리를 기록했다. 4년 연속이자 10년째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17개 홈런을 터트려 이 부문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공격에서는 경쟁력이 여전히 있다. 8월 12일 인천 SK전에서는 3홈런을 터트리기도 했다. 2019시즌은 자신의 데뷔 20년째가 된다. 2010년 소프트뱅크 1년을 제외하면 실기동은 19시즌째이다. 2000년 2

차 1라운드(8순위) 고졸투수로 한화에 입단해 20년 동안 그라운드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2011년 고장을 일으킨 허벅지 문제를 안고있지만 풀리지 않고 수비까지 겸하면서 존재감을 지켜왔다. 또 하나의 기록인 통산 2000경기를 앞두고 있다. 작년까지 1982경기 출전해 18경기만 추가하면 된다. 2000경기 출전은 KBO리그의 전설이 된다는 의미이다. 2000경기는 그만큼 꾸준하고 성실하게 활약한 상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통산 350홈런도 도전하고 있다. 22개를 추가로 터트려야 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올해는 3루의 짧은 도전자들이 많다. 작년 밀티플레이어 최원준을 비롯해 젊은거포 황태인이 자리를 넘보고 있다. 세대교체의 불결이다. 그러나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 같다. 여전히 타격에서 이범호를 위협하는 후배들이 아직은 없다. 황태인은 어깨부상으로 스프링캠프 참가가 불투명하다. 수비에서는 분명히 순발력이 떨어졌으나 타구의 예측을 통해 커버할 수 있다. 20년째의 경험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이범호는 베테랑의 품격을 갖고 있다. 동기생이자 주장 김주찬과 함께 후배들을 살뜰하게 챙기며 팀을 이끌고 있다. 두 선수는 2017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대기록이 눈 앞에 있지만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 "은퇴전에 다시 한번 우승반지를 끼고 싶다"고 밝혔다. 베테랑의 20년째 전성기가 시작됐다.



46세 '타격기계' 이치로 시애틀과 마이너 계약

일본의 타격기계 스즈키 이치로(46)가 시애틀 매리너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



MLB 닷컴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24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치로가 시애틀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이치로는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면 75만달러(약 8억 4500만원)를 받는다.

이치로는 3월 20~21일 일본 도쿄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오슬랜드 애슬레틱스와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개막 2연전에 출전할 전망이다.

MLB 사무국은 해외에서 열리는 정규리그 경기에서는 로스터를 25명에서 28명으로 늘려준다. 제리 디포토 시애틀 단장은 이치로가 고향에서 오슬랜드와의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치로가 개막 2연전 이후 25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늘 50세까지 선수로 뛰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 온 이치로는 지난해 3월 친정팀 시애틀과 보장 연봉 75만달러, 성적에 따라 20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1년 계약을 했다.

그러나 5월 초부터 시애틀 구단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잠시 배트를 내려왔다. 지난해 이치로는 15경기에서 타율 0.20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치로는 메이저리그 통산 2651경기 출전해 타율 0.311, 3089안타, 1420득점 509도루를 기록했다. 미·일 통산 4387개를 때려낸 이치로는 '타격 기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뉴시스

“류현진, LA 다저스 제3선발로 활약할 것”

커쇼·블러 다음... 부상 이기고 후반기 활약 높이 평가



LA 다저스의 류현진(32)이 3선발로 활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MLB닷컴은 23일(한국시간) 30개 구단의 5인 선발 로테이션을 예상했

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다. 클레이턴 커쇼와 워커 블러에 이어 류현진이 3선발로 거명됐다. 리

치 힐과 마에다 겐타는 4, 5선발로 예상됐다.

류현진이 부상을 이겨내고 후반기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지난해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했다. 시즌 후반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선발 마운드에 오르기도 했다.

MLB닷컴은 "다저스는 1, 2선발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그전 환상적인 딜레마라며 블러의 성장과 함께 맹활약을 기대했다."

다저스가 홀리우 유리아스, 로스 스트리플링 등 풍부한 선발진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MLB닷컴은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기쿠치 유세이가 시애틀 매리너스의 2선발로 활약할 것으로 봤다.

뉴시스

레알 마드리드, 세계 최고부자 구단

손흥민 토트넘 10위...기성용 뛰는 뉴캐슬도 전체 19위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강호 레알 마드리드가 세계 최고 부자 구단으로 선정됐다.

24일 영국 컨설팅그룹 딜로이트의 '풋볼 머니 리그'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2017~2018시즌 7억 5090만유로(약 96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세계 최고 부호에 올랐다.

2위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로 6억9040만유로(약 88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16~2017시즌엔 6억7460만유로(약 8658억원)를 기록,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6억7630만유로)에 이어 2위였지만 이번 시즌 순위를 끌어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18~2019시즌 6억6600만유로(약 8540억원)를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6억2920만유로), 5위는 맨체스터 시티(5억6840만유로)다.

가장 많은 팀을 배출한 리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다. 1위부터 20위 구단 가운데 9개 구단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이다. 상위 10개 구단만 봐도 6개 구단이 프리미어리그 팀이다.

한국인이 속한 팀들도 상위 20개 구단에 들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가 4억2830만유로(약 5450억원)를 기록, 전체 10위에 랭크됐다. 기성용이 속한 뉴캐슬은 2억150만유로(약 2760억원)로 전체 19위에 진입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는 4구단 독일 분데스리가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이어 3구단, 프랑스 리그1은 6위에 오른 파리생제르맹 한 구단만 순위권에 진입했다.

딜로이트는 매년 유럽 주요리그 구단들의 중계권, 광고, 홈 관중 등을 집계해 구단별 매출액을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i-honam.com
 지역공감, 미래성장,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자연의 숨겨진 아름다움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참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